



Jaden's story

A Pathways Link Programme Success Story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강찬영입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잠깐 다니다가 자퇴한 뒤 뉴질랜드에 와서 오클랜드 대학교 인터내셔널 컬리지의 Pathways Link Programme(PLP)을 수료했고, 이제는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진학합니다.

뉴질랜드를 유학 국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질랜드는 안전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매우 높고,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오클랜드처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도시에서 공부하고 싶었고, 뉴질랜드는 그런 점에서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공부했으며 시간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PLP에서는 한국 고등학교처럼 빡빡한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났고, 과목과 과목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었으며 점심시간도 여유롭게 주어졌습니다. 방과 후 자율학습이나 야간 자율학습도 따로 없었고요. 저는 체육, 영어, 수학, 회계, 비즈니스, 생물, 보건같은 과목들을 공부했습니다. 시간표가 여유롭고 효율적이어서 집중하기 더 좋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과 쉬웠던 과목은 무엇이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회계(Accounting)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과목이었고, 숫자 계산도 많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질문을 하면 자세히 알려주셔서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질문을 잘 못했지만, 선생님이 모르면 꼭 질문하라고 격려해주셔서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같이 공부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게 가장 쉬웠던 과목은 보건이었어요. 더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학생 프로필

학생 이름
강찬영

국적
대한민국

과정
University of 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
Pathways Link Programme
(level 1)



The University of Auckland
Certificate in Foundation
Studies (level 3) (Standard)



PLP는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고,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PLP 과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PLP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쿼시, 요트, 볼링, 박물관 탐방, 골프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할 수 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교내 편의점에 가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니다. 학교 분위기 자체가 따뜻하고 편안해서 항상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어떤 과외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나요?

저는 요트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바람을 맞으며 요트를 타는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뉴질랜드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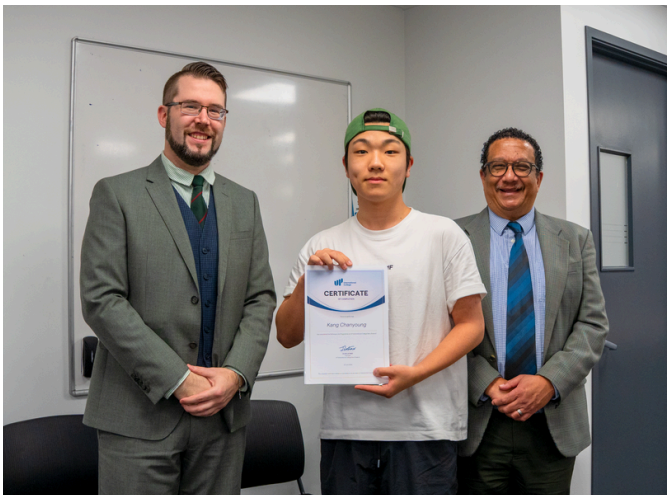


PLP 과정과 한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 방식이에요. 한국은 주입식, 암기 중심 교육이고 시험 위주로 평가되지만, PLP는 토론식 수업이 많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돼요.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요. 한국 학교는 위계적인 분위기가 강한 반면, PLP에서는 친구 같은 분위기라 더 자유롭고 편하게 느껴졌어요.

학업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평가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만 집중해서 준비하면 되지만, PLP는 과제와 시험이 수시로 있어서 매일 조금씩 공부해야 한다는 점이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공부 루틴을 만들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었어요.



PLP와 파운데이션 과정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한다면 그 이유와 조언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PLP와 파운데이션 과정을 정말 추천해요. PLP는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고,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준비사항은 스피킹도 좋지만 리딩과 쓰기 위주로 실력을 조금이라도 미리 쌓아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UoAIC와 오클랜드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클랜드 대학교는 뉴질랜드 최고의 대학교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학교예요. 캠퍼스도 아름답고, 학문적인 수준도 매우 높아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느끼면서 동시에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은 드문데,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홈스테이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PLP 기간 동안 홈스테이에 살았는데, 제 호스트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이셔서 여러 임시 홈스테이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집을 자주 싸야 하는 게 불편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걱정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좋은 경험으로 남았어요.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 예정입니다.



졸업 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서 졸업 후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저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저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